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 통합적 인터넷 강의 콘텐츠 개발사례

박정윤(영남대학교)

I. 통합적 인터넷 강의 개발배경과 사례작성의 목적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교육에 e-러닝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 경북권역 대학 e-러닝 지원센터가 2008년도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인터넷 강의를 공모하게 되었는데 본 연구자는 성경과 기업경영을 통합하는 과목을 개발할 목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한 것이 선정되어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이라는 과목을 개발하여 2008년 2학기부터 영남대학교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강의를 진행 중에 있다.

성경과 기업경영을 통합하여 인터넷 강의 과목으로 개발한 것은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이 처음으로 시도된 과목인 것 같다. 성경과 가계재무관리(personal finance)를 통합하여 개발한 과목으로는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가 있다(박정윤, 2006). 그리고 성경과 증권투자를 통합하여 개발한 인터넷 과목으로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가 있다(박정윤, 2007).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또 다른 과목을 개발하면 수강을 신청하겠느냐는 질문에 73%가 ‘예’로 답하였다. 또 어떤 분야의 과목이 개발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성경으로 배우는 경영학”이 18%로, 본 연구자의 전공분야의 통합과목인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재무관리” 10%보다 더 높게 응답하였다. 이것이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근 각 대학마다 인터넷 강의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것을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솔로몬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¹⁾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전공이나 교양과목을 성경과 통합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을 개발한 이유이다.

따라서 본 사례작성의 목적은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이라는 통합적 인터넷 강의 콘텐츠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기독교수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터넷 강의과목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데 있다.

논문의 구성과 전개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강의 콘텐츠의 내용을 주차별로 내용을 간단히 서술한다. 이어 III장에서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논문의 요약과 함께 설문조사결과와 시사점을 찾아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다.

*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jypark@yumail.ac.kr

1) 잠언 1:7; 9:10.

II. 강의 화면의 구성과 주차별 강의 내용

1. 강의 화면의 구성

대구경북권역 대학 e-러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의 왼쪽 부분 상단에는 강사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왼쪽 부분의 하단에는 강의목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2. 주차별 강의내용과 구조적 특징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은 15주차로 강의하도록 설계되었다. 8주차와 15주차에는 각각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를 하는 것은 13주 간이다. 각 주차별 강의시간은 약 1시간이며 모든 주차의 강의는 약 30분간 진행되는 두 개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각 주차의 첫 강의에서는 기존의 경영의 내용을 강의하고, 둘째 강의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경영의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이제 각 주차별로 주제와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1주차 1강에서는 일반 경영학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에 대한 개관을 다루고 있다.

1강의 학습목표는 기존 기업경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Walter Wright은 경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Management is a relationship between a leader and followers that focuses on a specific set of tasks within an organization, business, church or voluntary society.” Alvin Brown은 경영을 아주 단순하게 계획, 실행, 평가의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중요성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둘째, 기업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소득 획득의 기회를 준다. 셋째,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여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정부 세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넷째, 기업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 기존의 기업경영을 다루는 경영학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윤리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1997년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예컨대, 한보철강의 경우 1996년 6월말 현재 자기자본 2,243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타인자본은 42,461억원이 되어 부채비율이 거의 2,000%나 되었다. 한보철강의 당시 정태수 회장은 뇌물수수에 의한 정경유착으로 담보제공 없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빌릴 수 있었다.

1주차 2강의 학습목표는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이 기존 기업경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한 학기동안의 강의내용을 개괄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다.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과 기존의 기업경영을 다루는 경영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존의 경영학은 기업경영에 하나님의 존재를 불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은 기업경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여 성경적 경영원리에 기초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그는 잠언 9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기업도 하나의 집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서도 여호와와의 지혜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Alvin Brown의 경영모형의 한계를 설명한 후에 본 과목의 개발배경을 말한 후에 한 학기 동안의 강의내용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2주차 1강의 학습목표는 경영과정학파에 속하는 Alvin Brown의 경영모형과 Koontz, O'Donnel 그리고 Weihrich의 경영모형을 학습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Alvin Brown의 경영모형은 가장 단순한 경영모형이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는 경영은 계획(planning), 실행(doing), 평가(seeing)의 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Alvin Brown 모형의 한계는 이 모형 속에 하나님의 역할을 배제한 인간중심의 모형이라는 데 있다. 기업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파악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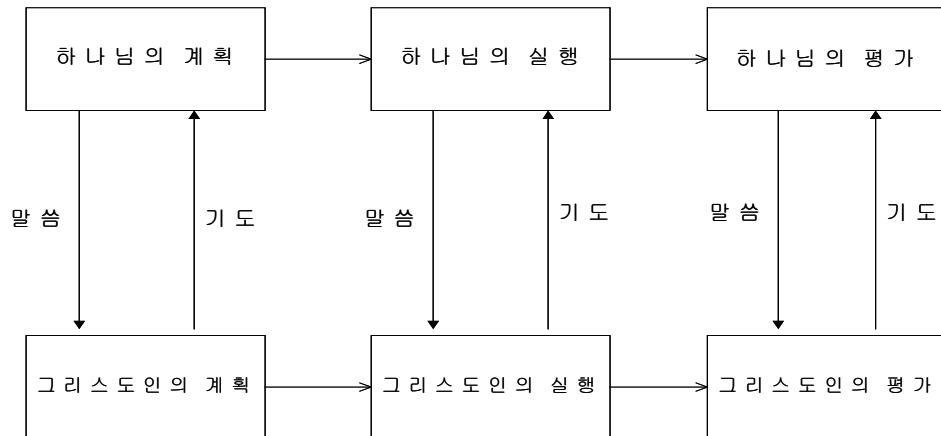
Koontz, O'Donnel 그리고 Weihrich의 경영모형은 구체적 경영과정 모형으로 경영을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의 다섯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다섯 가지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또한 이 모형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형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2주차 2강의 학습목표는 창세기 1장의 창조내용을 중심으로 창조에 나타난 경영사상을 학습하고, ‘이중적 경영모형’을 학습하는 데 있다. 창조에 나타난 경영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의 세 관리과정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예컨대, 첫째 날의 경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빛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신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4)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다. 이 하나님의 경영과정은 다른 날의 창조활동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 경영모형을 박정윤(2002)은 “창조적 경영과정 모형”이라 칭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이 논문에서 이 모형의 시사점으로 1) 경영활동의 목표에 대한 시사점, 2) 하나님의 경영 대리인으로서의 사람, 3) 경영협의체의 필요성, 4) 능력개발의 중요성, 5) 일과 휴식의 조화, 6) 환경 친화적 경영의 필요성, 그리고 7) 창조적 경영원리에 따른 경영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박정윤(2006)의 이중적 경영모형은 창조적 경영과정 모형을 확장한 모형으로 성경의 전체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잠언 21:30)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림>과 같이 이중적 경영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이중적 경영모형



3주차 이후에서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의 내용은 Koontz, O'Donnel, 그리고 Weihrich의 경영모형에 나오는 5가지 기능을 따라 기존의 경영의 내용과 함께 성경적인 관점의 경영 내용을 비교하면서 전개하고 있다.

3주차 1강은 계획기능을 다루고 있다. 1강의 학습목표는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 후에, 전통적으로 기업의 목표로 알려지고 있는 이익극대화, 가치극대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학습하는 데 있다.

Wright는 계획을 조직의 사명과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관리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계획은 세우는 이유에는 네 가지가 있다. 1) 불확실성과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 2)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3)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4) 통제를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은 모두 여덟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기회를 주의하기, 2) 목표설정, 3) 가정개발, 4) 대안결정, 5) 대안평가, 6) 최적 대안선택, 7) 파생계획 수립, 그리고 8) 예산에 의한 계획의 수치화.

기업경영의 목표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즉, 이익극대화, 가치극대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기업경영의 목표가 이익극대화에서 가치극대화, 가치극대화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이동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주차 2강은 성경적 계획과 기업목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일부 성인들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기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한다. St. Jerome 은 “상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St. Augustine “기업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필수적인 조직이라 말할 수 있다.

기업을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에 의하면 사명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르러 보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명의 의미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자신도 제자들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기업 경영자가 옳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경영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기초하여 기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기업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번창할 수 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와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또 그는 잠언 1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기업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될수록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언 15:22).

한 기독교인 경영기업의 기업목표를 살펴보자. CMDS(Computer Management and Development Services)는 북미에서 빨리 성장하는 개인회사 중의 하나인데 미국 버지니아주 해리슨버그에 소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학과 의료기관을 위한 행정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50여명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사는 네 가지의 기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2) 사람들을 개발시킴, 3) 최상의 서비스를 추구함, 그리고 4) 이윤을 창출함. 그런데 이 기업은 이윤창출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앞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큰 이익도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

성경적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 전서 10:31).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주차 1강은 조직기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2강은 성경에서 배우는 조직 원리와 사례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직(Organizing)이란 무엇인가? Walter Wright는 조직은 조직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구조와 자원을 제공하는 관리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직은 완수할 과제를 확인하고 분류하여 각 과제를 특정한 사람에게 할당하는 것을 수반한다.

조직에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다. 바나드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의식적으로 조정할 때 그 조직을 ‘공식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비록 공동의 결과에 기여할지라도 의식적인 공동의 목표가 없는 공동의 개인적 활동을 ‘비공식 조직’으로 간주하였다. 바나드는 공식조직의 본질은 의식적인 공동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1)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2) 행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3) 하나의 목표를 공유할 때 공식 조직이 생긴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효과적인 공식조직의 설치를 위해서는 ‘목표의 단일성의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기본적 부문화 방법에는 숫자에 의한 부문화, 시간에 의한 부문화, 기업 기능에 따른 부문화, 지역별 부문화, 제품별 부문화 등이 있다.

조직에서 라인과 스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라인 기능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는 기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스텝은 라인이 기업의 주된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요소를 말한다.

4주차 2강의 학습목표는 민수기, 출애굽기, 느헤미야서 등에서 여러 가지 조직 사례를 통해 조직기능의 원리와 실재를 학습하는 데 있다.

2) 리처드 चु닝, 존 에비, 셸리 로엘즈 지음,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 안동규, 한정화 옮김, 1995, 15-16.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할 때 이스라엘의 야영 배치도와 전쟁조직은 좋은 조직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느헤미야서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도 조직의 훌륭한 사례이다. 45개 지역에 걸쳐서 약 40 여명에 의해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방대한 공사였지만 탁월한 조직가인 느헤미야에 의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출애굽기에는 조직수준과 관리의 범위에 대한 상담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의 사위에게 지도자를 세워 그들에게 재판의 일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출애굽 18: 21-22). 이 사례는 관리의 폭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 지도자가 관리할 수 있는 폭은 10명에서 1,000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례는 기업컨설팅의 성경적 근거가 된다.

바울도 교회조직을 몸과 지체의 관계로 로마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로마서 12:4-5).

5주차 1강의 학습목표는 경영의 셋째 과정인 총원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총원이란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 즉 재능과 기술을 제공하는 관리과정이다. 전통적으로 총원은 인적자원계획, 인사정책개발, 채용, 성과평가, 경력개발, 그리고 보상관리의 여섯 가지 기능을 수반한다.

인적자원계획은 조직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업무가 힘든 일인데도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경력관리에 좋은 기회가 된다. 2) 금전적 보상이 매력적이다. 3) 여러 가지 권력이 주어진다.

인사정책개발은 조직의 인력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수립하는 일이다. 채용은 조직을 구성할 인력을 모집, 선발, 오리엔테이션, 배치, 승진의 연속적인 활동이다.

성과평가는 조직의 내부에서 업무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성장하도록 도우는 일이다.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특성 평가방법과 MBO 시스템을 이용한 인사고과방법이 있다.

경력개발은 경영자의 개인적 및 직업적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그들을 지원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내적 훈련방법과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외적 훈련방법이 있다.

보상관리는 경영자의 일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연공서열급과 성과급이 있다.

5주차 2강은 총원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다루고 있다. 인간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아담은 수많은 각종의 들짐승과 각종의 새의 이름을 일일이 지을 만큼 지적 능력이 탁월하였다. 또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식과 재능을 주셔서 성전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정교하게 만들게 하셨다.

훈련과 개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무엇일까? 기업은 하나님의 교육과 개발의 대리인이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인데

기업은 종업원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의 관점에서 올바른 채용전략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일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나이에 의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도덕적 이유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인 이유로 한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주말의 결근율이 젊은 사람 40% 이상이었으나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결근이 전혀 없었다.

임금에 대한 결정원리는 원칙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 임금에 지체하지 말고 정해진 날에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6주차 1강은 지휘기능을 다루고 있다. 먼저 지휘란 무엇인가? 지휘는 조직개발의 모든 영역에 지시를 제공하고 관여하는 관리과정을 말한다.

McGregor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Theory X는 보통의 인간은 일을 싫어하고 될수록 일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Theory Y는 인간에게 일은 놀이나 휴식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지휘나 자기통제를 행사하고자 한다.

인간의 동기는 의식적으로 느끼는 그릇된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몇 가지 동기유발이론을 살펴보자. 먼저, Maslow의 욕구 5단계설은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또는 안정욕구, 소속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와 같이 다섯 가지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에서의 인간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Herzberg의 위생-동기 요인이론에 의하면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만족했던 요인과 불만을 가졌던 요인으로 나누어 확인되었다. 그는 전자를 동기요인으로 불렀고 후자를 불만족요인 또는 위생요인으로 불렀다. 만족요인으로는 성취, 인정, 도전적인 일, 승진, 직무에서의 성장이 확인되었고 불만족요인으로는 회사정책, 감독, 작업환경, 인간관계, 급여, 신분 등이 확인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위생요인은 불만족을 없앨 수는 있지만 성과의 향상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다. 성과의 향상은 동기요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Vroom의 Valence-Expectancy Theory는 $Force = valence \times expectancy$ 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람의 동기유발의 힘은 valence와 expectancy의 곱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Force는 사람의 동기유발의 힘이고, valence는 개인의 결과에 대한 선호도의 강도이다. 그리고 expectancy는 어떤 행동이 기대결과에 이르게 할 확률을 의미한다.

McClelland에 의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욕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권력욕구, 소속욕구, 그리고 성취욕구이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가는 성취욕구가 매우 높고 권력욕구는 비교적 높으나 소속욕구는 아주 낮다. 경영자는 기업가와 비슷하지만 정도 면에서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이론에는 리더의 어떤 특성이 리더가 되게 한다는 특성이론과 리더는 주어진 상황의 산물이라는 상황이론이 있다. 이 밖에도 상황의 유리성에 따라 과제중심형의 리더십과 인간관계중심형의 리더십 스타일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피들러의 컨틴전시 리더십 모형이 있다. Blake과 Mouton은 개인의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행동차원을 근거로 관리격자를 만들고 리더행동을 크게 다섯 가지의 기본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섯 가지 유형은 무관심형, 과업형, 컨트리 클

럽형, 중간형, 그리고 팀형이다.

6주차 2강은 성경적 리더의 특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 리더십을 다루고 있다. 기업의 리더도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정 또는 조직의 구성원이 시선을 어떤 것 위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전반적 목표의 동의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King James Version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eth the law, happy is he.” 여기서 비전은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전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 부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는 비전을 이상으로 번역했고 이것은 말씀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고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³⁾

기업의 비전 어떻게 얻는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비전가나 집단으로부터 얻게 된다. 비전을 구성하는 세 요소에는 조직의 위치, 구성원, 전통이 있다. 비전은 기업의 전략적 계획에 기초가 된다. 또한 비전은 기업 구성원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성경적 리더의 인격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겸손, 온유, 정의, 순수, 그리고 화합이 그 특성이라 할 수 있다.⁴⁾

마태복음 20:20-20:28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일반 리더십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대조하여 알려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리더들의 리더십은 자기 멋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크리스찬 리더십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서번트 리더십의 모델이 되고 있다.

7주차 1강은 통제기능을 다루고 있다. 통제란 무엇인가? 통제는 조직의 목표의 진전과 완성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말한다. 통제는 성과의 표준을 개발하고, 성과와 결과를 측정하고, 성과를 표준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성과의 차이를 수정하는 일을 수반한다.

전통적인 통제기법으로 예산이 있다. 예산이란 숫자로 세우는 계획을 말하는데 예산의 형태에는 매출예산, 비용예산, 이익예산, 현금예산, 자본지출예산, 변동예산, 영기점 예산 등이 있다.

최근에는 MIS 통제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MIS란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경영층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MIS는 크게 네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1단계는 일괄처리방식, 2단계는 중앙집중식 처리방식, 3단계는 분산화 처리방식,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네트워크 처리방식이다.

3) 사도행전 9:10-16; 10:1-8; 16:6-10 등에서 비전을 환상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겸손은 마태복음 5:3-4, 온유는 5:5, 정의는 5:6, 용서는 5:7, 순수는 5:8, 화합은 5:9에서 각각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 성과의 통제시스템도 있다. 전반적 성과의 통제시스템에는 예산요약서, 손익계산 통제, ROI(return on investment)를 통한 통제 등이 있다.

7주차 2강은 성경에서 배우는 통제 또는 평가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과 실행의 하나님인 동시에 통제 또는 평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매일 창조하신 후에 창조내용에 대해 평가를 하시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의 창조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 또는 ‘일별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대한 ‘종합평가’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을 때 좋게 평가를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신다.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⁵⁾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신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악인은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 평가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재능, 재물, 복음, 시간 등을 의로운 청지기 자세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더 나아가서 영원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가하실 것이다. 넷째,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한 자에게는 보상을 하시지만 잘못 관리한 자에게는 책망을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평가와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바울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4절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자기 손으로 바울과 자신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그는 자신의 형제이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자신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평가하였다.

9주차 1강은 의사결정에 대해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Alex MacKenzie는 의사결정은 관리의 각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계속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한 논문에서 관리과정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순차적 요소(계획, 조직, 충원, 지휘, 그리고 통제)와 두 가지의 지속적 요소(의사결정과 의사소통)를 확인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계획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다른 조직, 충원, 지휘, 통제의 각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의사결정의 첫 단계는 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하는 것이다. 문제를 정의할

5) 신명기 1:17, 잠언 16:2, 사도행전 10:34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때 기회나 위험 요인을 고려한다. 둘째 단계는 의사결정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SWOT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번째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대안을 평가하는 것이다. 각 대안의 평가에는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한계분석이나 비용과 효익분석을 활용한다. 다섯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기업에서는 개인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그룹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룹 의사결정의 장점으로 1) 보다 완전한 정보의 제공, 2) 더 많은 대안 개발, 3) 대안의 수락될 가능성 제고, 그리고 4) 적법성 증가가 있다. 그룹 의사결정의 단점은 1) 많은 시간 소요, 2) 소수가 그룹을 지배, 3) 다수결에 의한 결정(소수의견 무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있다.

그룹의사결정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법에는 브레인스토밍, Nominal group technique, 그리고 Delphi technique이 있다.

9주차 2강의 학습목표는 성경에서 배우는 의사결정의 원리와 사례를 학습하는 데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결정원리를 살펴보자.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잘 나타나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신이 섬길 주인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⁶⁾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의사결정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여 실직하게 된 것이다. 의사결정의 목표는 자신이 청지기 직분을 잃은 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땅을 파는 일, 빌어먹는 일,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개발하였다. 다음에 그는 세 대안을 평가하였다. 불의한 청지기는 땅을 파는 일은 힘이 없어 곤란하고 빌어먹는 일은 부끄러워서 하기 힘들겠다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최적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그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일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적대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도 의사결정원리를 배울 수 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원리로 부터 파생적 원리를 두 가지 얻을 수 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유익의 원리’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도록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건덕의 원리’이다. 이 두 원리를 기업에 적용을 한다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10주차 1강은 의사소통에 관하여 다룬다.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Wright는 관리과정의 또 다른 하나의 지속적인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조직의 개발의 모든 영역을 연결하는 기능이다. Sigband는 의사소통은 문자, 구두, 상징, 그리고 행동을 통해 아이디어,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항공업체가 록히드 마틴사 대형수송기 계약서에 심표 하나를 잘못 찍는 바람에 7,0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 마태복음 6:24과 누가복음 16:13.

의사소통과정과 요소에는 전달자, 부호화, 매체, 지각/해석, 수신자, 피드백이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를 잡음이라 한다.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구두 의사소통 (oral communication), 문서 의사소통 (written communication), 그리고 신체 언어(body language)와 말의 억양(intonations)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이 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먼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애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애물로 거르기, 선택적 인지, 정서, 언어, 정보과잉, 비언어적 신호, 시간압박이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 1) 정보 흐름을 규제한다, 2) 피드백을 이용한다, 3) 언어를 단순화한다, 4)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5) 감정을 절제한다.

10주차 2강에서는 성경에서 의사소통의 원리와 사례를 학습하도록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몇 가지 정리해보자.

먼저, 입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정직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오는 제 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한다. 솔로몬도 사람은 속이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제 9계명을 지지하고 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잠언 12:17).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직한 말을 하도록 이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태복음 5:37)

둘째, 말을 절제하여야 한다. 이것을 ‘언어의 절제원리’라 할 수 있다. 솔로몬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언 10:1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악인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태복음 12:35). 따라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될 필요가 있다. 야고보도 혀가 비록 작은 지체지만 이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말하면서 혀를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⁷⁾

셋째, 사람은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야 한다. 이것을 ‘경청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여러 곳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다.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다. 예컨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태복음 13:9)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듣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⁹⁾ 야고보도 사람이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야고보 1:19).

넷째, 성경은 잘못된 의사소통의 이유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잘못된 의사소통의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은 자신의 근원적인 불안정을 숨기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잘못된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7) 야고보 3:5, 8.

8) 잠언 1:7; 잠언 13:1 등.

9) 마태복음 13:16.

권면하고 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잠언 18: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못된 의사소통의 해결을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⁰⁾ 1단계는 과실을 범한 사람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제 2단계는 한두 사람을 동반하여 확증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권위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11주차 1강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방법인 기도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기도란 무엇인가? Wright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도는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후에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기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속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경영상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시도록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실은 시편 107편에 잘 나타나 있다.¹¹⁾ 이 시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은 위기가 발생되면 근심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로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 경영자에게도 동일한 패턴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경영자의 영적 사이클’이라 부를 수 있다. 기업경영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은 경영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보고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자신을 원수나 스승, 그리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노래하고 있다.¹²⁾

박정윤(2005)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합한 쌍방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도로 경영사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하도록 된다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¹³⁾ 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¹⁴⁾ 둘째, 성령은 우리에게 경영을 비롯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¹⁵⁾ 셋째, 성령은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¹⁶⁾ 넷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즐거움, 의를 누리게 하신다.¹⁷⁾

10) 마태복음 18:15-17.

11) 시편 107:4-22; 23-32.

12) 119: 98-100.

13) 누가복음 11:1-11.

14) 요한복음 14:16.

15) 요한복음 14:26.

16) 요한복음 16:13.

17) 요한복음 14:27, 15:11, 16:10.

11주차 2강의 학습목표는 기도로 경영위기를 극복한 기독교실업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기도의 능력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검토할 기독교실업인은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성주 인터내셔널'의 김성주 사장, United States Plastic Corporation의 Stanley Tam 사장이다.

먼저,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기도로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부터 살펴보자. 세 가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는 기도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이다. 박성수 회장은 28세의 나이에 이화여대 앞에서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골목에서 두 평 남짓한 옷 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게를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1년 뒤 기도응답은 이렇게 나타났다. 이대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온 경희대 여학생이 이 가게에 들러 갔다. 이때 그 여학생이 퇴직하게 된 자기 언니에게 마땅한 직업을 찾아주려다가 떠올린 생각이 바로 프랜차이즈였다. 이것이 이랜드가 프랜차이즈 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기도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이다. 1980년대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때는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랜드가 자금이 필요할 때 박회장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서 어느 날 은행 지점장이 박 회장을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회장은 이랜드는 법정금리 이외에 따로 돈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 박 회장은 속으로 “1억 정도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장은 “7억 정도부터 시작하면 어떨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이것이 기도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사례다.

셋째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은행의 대출 문이 닫혔을 때 금식기도로 해서 부도를 막은 사례이다. 박 회장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강하시지만 약속에 약하신 것을 압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주십시오.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길과 강을 열어주십시오.”¹⁸⁾ 기도응답은 이렇게 나타났다.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한 외국투자자가 10억불을 가지고 찾아와서 투자처를 찾고 있었는데 이랜드는 이 돈의 1/10의 외자유치를 통해 부도를 막게 되었다. 이 외국투자자는 이랜드가 이중장부를 사용하지 않고 장부가 하나라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성주인터내셔널 김성주 사장의 기도사례를 세 가지 살펴보자. 첫째, 기도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확신을 얻은 사례이다. 김 사장은 유학과 해외 현장의 유통실무를 경험한 후 1989년에 귀국하였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한 사업선배는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술 잘 마시기, 거짓말 잘 하기, 흰 봉투(뇌물) 잘 받치기의 세 가지 비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김 사장은 고민하며 창업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다. “비록 여자지만, 비록 경험도 많지 않지만, 비록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어주실 거야?”라는 믿음과 확신이 와서 창업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둘째는 300억원의 현금을 날리고 기도로 M&A를 통해 265억을 벌게 된 사례이다. 김 사장은 Marks & Spencer 대리점 권을 따서 명동에 매장을 세웠는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 300억 원의 현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김 사장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울면서 기도하였다. 결국 기도응답은 이렇게 나타났다. 사업 파트너인 구찌(Gucci)가 김 사장에게 합작을 제안하게 되었고 하나의 사업을 매각하여 265억 원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이때 김 사장은 혼자

18) 이사야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서 싸우는 것이 힘든 것을 알고 좋은 팀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젊은 크리스천 두 사람을 보내주셨다.

셋째는 어린 아이가 화상을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 살아난 사례이다. 김 사장의 8개월 난 아이가 온 몸에 화상을 입게 되어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였다. 이때 김 사장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죄 많은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김 사장은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 앞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게 되었다.

넷째, United States Plastic Corporation의 Stanley Tam 사장의 세 가지 기도응답 사례이다. 첫째는 탬 사장은 Tamco Silver collector(탐코 은 수집기) 사업을 위해 기도한 사례이다. 그가 25불을 벌어들인 후 콜럼버스로 가면서 “주님, 어떻게 사진사들을 설득하여 은을 재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게 된다면, 내가 수확할 것이 생기도록 하는 데 걸리는 12개월 동안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탬 사장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다.

둘째는 엔진 고장이 났을 때 기도하여 무료로 차를 고친 사례이다. 집에서 256km 떨어진 곳에서 탬 사장의 차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이곳은 전차의 종점입니다. 저는 낙심하였고, 무일푼이며, 집에서 256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자 탬의 눈에 자동차 정비소가 보여서 그곳에 갔을 때 정비공이 기술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를 소개하여 결국 무료로 차를 고치게 되었다.

셋째는 기도로 아내를 얻은 사례이다. 처음에는 기도온과 같은 기도를 하였다. 결국 탬은 기도온의 기도대로 응답되지는 않았다. 처음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공원에서 교제할 때 스탠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의 결혼 상대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줄래요, 주아니타?” “기꺼이 그러겠어요.”하고 주아니타가 대답했다.

12주차 1강은 투자계획에 관해 다루고 있다. 기업의 투자도 하나의 경영활동으로 인식한다면 먼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해 평가를 한다.

기업이 하는 투자에는 실물자산의 투자와 금융자산의 투자가 있다. 실물자산의 투자를 자본예산이라 하고 이것은 생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투자는 차입과 대출의 결정이며 이것은 자본조달결정이다. 최적 생산결정은 한계변형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과 시장의 이자율이 같은 점에서 이루어진다.

투자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법이 있다. 각 평가방법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투자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12주차 2강의 학습목표는 성경적인 투자원리를 학습하는 데 있다. ‘실패한 투자’를 ‘성공적인 투자’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일까? 스티븐 스캇(Steven K. Scott)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아홉 번 실직을 하였고 자기 사업을 벌였으나 순식간에 실패하였다. 이때 그는 자신의 친구인 게리 스몰리 박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스몰리 박사는 역사상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을 매일 1장씩 읽고 사업에 적용하도록 권유하였다. 그 결과로 스티븐은 American Telecast Corporation의 공동설립자로서 수십억 달러의 판매량을 올리고, 연 7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가가 되었다.

솔로몬이 가르치는 투자원리는 무엇인가?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먼저, 사람은 스스로 지

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¹⁹⁾ 둘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잠언은 의논하여 계획을 세울 때 성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²⁰⁾ 셋째,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언 10:2).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잠언 13:11). 넷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솔로몬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서 봉사하게 되고 천한 사람 앞에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언 22:29). 또한 그는 지혜로운 자는 일을 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도서 10:10).

예수 그리스도의 투자원리도 몇 가지 학습해 보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업을 하라. 이 투자원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둘째,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쌓아두라. 이 투자원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누가복음 12:21). 셋째,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장사하라. 이 원리는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에서 찾은 것이다. 넷째, 재물의 거래는 정직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다섯째, 우리가 투자할 기간은 정해져 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여섯째,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상(긍정적 보상 또는 부정적 보상)이 있다.

13주차 1강은 기업의 자본조달계획을 다루고 있다. 기업의 자본조달도 하나의 경영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업이 자본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조달계획을 수립한 후에 자본조달계획을 실행한다. 그리고 자본조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기업의 목표는 가치극대화이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자본조달이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순영업이익 접근법 (NOI approach), MM의 무관련이론(1958), 그리고 밀러의 균형부채이론(1977)은 이 입장을 지지한다.

둘째, 자본조달이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에는 순이익 접근법 (NI approach), MM의 법인세 수정이론(1963년)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조달이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있다. 파산비용과 대리인비용의 존재는 부채가 기업가치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자본비용과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본구조이론으로 정태적 균형이론(static tradeoff theory)과 자본조달순위이론이 있다. 정태적 균형이론은 부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를 최대 만드는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자본조달순위이론은 정보불균형하에서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내부금융으로 조달하고, 외부금융이 필요할 경우에 자본의 조달은 부채, 우선주, 그리고

19) 잠언 1:7; 9:10.

20) 잠언 15:22; 21:5.

마지막으로 보통주를 발행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13주차 2강에서는 성경의 자본조달원리를 학습한다. 박정윤(1996)은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라는 논문에서 차입원리와 대출원리로 분류하여 각 원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빛진자로 살 것인가 빌려주는 자로 살 것인가』에서는 IMF 외환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 결과로 나타난 경제현상으로 설명하고 개인이나 가계가 빚지지 않고 살도록 성경적 관점에서 가계재무관리의 원리를 정리한 책이다.

박정윤(1998)의 논문인 “기독교인 경영기업과 일반기업의 자본구조전략 차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미국 기독교인 경영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이다. 먼저 성경적 차입원리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 후에²¹⁾ 몇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각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1 가설은 ‘기독교인 경영기업의 부채비율과 일반기업의 부채비율은 차이가 없다.’였다. 실증분석결과 두 기업의 부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기업가운데 ‘무부채 정책’과 ‘보수적 부채정책’을 추구하는 기업이 약 50% 정도 되었다.

박정윤(2000)의 “재무정책과 기업부실예측”이란 논문에서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부실 4년 전과 부실 5년 전에는 추정모형에서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본부채비율이 기업부실에 유의한 영향(부실확률과 부채비율은 양의 관계)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부실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7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부자는 채권자이고 빈자는 채무자라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말하여 빈부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²²⁾ 예수 그리스도의 빈부에 대한 암묵적인 정의도 솔로몬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가 채권자이고, 빈자는 채무자라고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 경영자인 스탠리 탬은 원칙적으로 타인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의 많은 대기업도 무차입 정책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주차 1강은 배당을 하나의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배당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배당 성향을 설명한 후에 배당의 지급형태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자사주 재매입, 현물배당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배당결정의 이론적 목표는 배당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이다.

배당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가? 이 관계를 설명하는 입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 배당이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자를 ‘우파’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Graham과 Dodd, 그리고 Gordon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둘째, 배당이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자를 ‘급진적 좌파’라고 부른다. 이들은 배당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배당이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이들을 ‘중도파’라고 부른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 학자는 Miller와 Modigliani이다. 이들은 완전자본시장에서는 배당과 기업가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제 1 원리는 ‘차입은 성경에서 허용되어 있으나 필수로 억제하라.’ 제 2 원리는 ‘차입자는 대출자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 3 원리는 ‘차입은 정상적인 신호가 아니다.’ 제 4 원리는 ‘장기부채를 누적시키지 말라.’ 제 5 원리는 ‘채무는 반드시 갚아라.’이다.

22) 누가복음 16:1-13.

기업의 현실적 배당정책은 기업의 투자기회, 산업의 배당관행, 기업의 목표 배당성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다.

14주차 2강에서는 기업의 경영성으로 나타난 이익을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학습한다.

기업의 경영성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먼저, NCR의 사명선언을 살펴보자. 여러 가지 사명가운데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창조한다. 둘째, 주주들에 대해서는 투자수익률(ROI)을 증대할 수 있도록 헌신한다.

헨리 포드 2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The term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industry and society are changing. . . Now we are being asked to serve a wider range of human values and to accept an obligation to members of the public with whom we have no commercial transactions."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로서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성으로 주주를 포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의와 사랑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정윤(2002)은 “재무정책과 기업부실예측”의 논문에서 배당과 기업부실 확률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당이 낮아지는 것은 기업부실의 전조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액이 낮아질 때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5:31-46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자, 나그네를 영접한 자,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자, 병든 자를 돌아본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본 자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돌보지 아니한 자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10:25-37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업경영자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착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에덴동산을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기업은 환경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보존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농사를 지을 때 안식년을 지키고²³⁾ 축산업을 할 때 가축의 생명을 돌보아야 한다.²⁴⁾ 또한 건축을 할 때 생명을 안전하게

23) 레위기 25:3-4.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24) 잠언 12:10.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²⁵⁾

III. 설문조사의 실시와 결과분석

수강생들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강의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터넷 설문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강생 152명중 141명이 설문에 응하여서 응답률이 93%로 아주 높았다. 설문 항목으로 개발된 문항 수는 모두 11항이었다.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기서 문항의 내용과 문항별 설문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응답한 수강생은 4학년이 57%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는 3학년 19%, 1학년 13%, 2학년 9%의 순서로 나타났다. 4학년이 제일 많이 신청한 것은 4학년의 경우 인터넷 강의를 한 학기당 세 과목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²⁶⁾ 출석시간의 제약이 적은 인터넷 강의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수강생을 성별로 파악해본 결과 남학생이 65%(93명)으로 여학생의 거의 두 배나 되었다. 이것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강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과목을 어떻게 수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강의 요람을 보고’가 58%로 가장 높았다. ‘친구의 권유로’가 2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박 교수의 홍보로’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는 학생은 11%였다. ‘교육개발센터의 홍보를 보고’ 수강한 학생은 1명뿐이었다.

이 과목을 포함하여 인터넷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과목 수는 2과목이 54%로 가장 높았다. 3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32%로 그 다음 높았고 1과목만 듣는 학생은 12%였다.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이 2008년 2학기에 처음으로 개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 과목만을 신청한 것이 12%나 되었다는 것은 이 과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귀하는 인터넷 과목을 off-line 강의보다 더 선호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이 무려 68%나 되었다. ‘아니요’라고 답한 학생이 31%였다.

한 문항에서 연구자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과목인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나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를 이전 수강하였거나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예’라고 답한 학생이 63%나 되었다. 이로써 이전에 개발한 인터넷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강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개발한 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53%인 76명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로 답했고, 37%는 ‘조금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5%였다. 2%만이 ‘조금 불만족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 이 과목 수강생의 90%가 만족을 표시한 것을 보면 강의만족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귀하는 이 과목을 다른 학생에게 수강을 추천하겠습니까?”는 질문에 62%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소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가 17%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도 17%였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79%는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5) 신명기 22:8.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26) 영남대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한 학기에 두 과목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수강생의 종교는 개신교가 46%로 가장 높았고 천주교가 1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종교가 불교인 수강생은 10%로 천주교보다 조금 낮았다. 유교라고 답한 학생은 한 명밖에 없었고 기타가 30%로 매우 높았다.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는 질문에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학생이 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읽는다고 답한 학생이 26%로 제법 많았다. ‘한 달에 한번 정도’라고 답한 학생은 8%였다. ‘일 년에 한번 정도’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24%와 19%였다. 무려 43%의 수강생은 성경지식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목을 듣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과목에 대한 교재를 집필할 경우 책 제목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주관식으로 물었다.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가 좋겠다고 답한 학생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기업경영’, ‘하나님의 기업경영’, ‘성경과 기업경영’을 제안한 학생이 각각 3명씩 있었다.

IV. 요약과 설문결과의 시사점

본 논문의 목적은 2008년 2학기부터 영남대학교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시작한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과목의 강의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데 있다.

먼저 저자가 이 과목을 개발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한 후에 15주간의 주차별 강의 콘텐츠를 간단히 제시하고 설명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의 제목으로 인터넷 과목을 개발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 일반 대학에서 성경에 기초하여 전공과목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대학생들에게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게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클 것이다. 크리스찬 학생들에게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둘째, 성경에 기초해서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70% 가까이가 off-line 강의보다 인터넷 강의를 더 선호하고 있다. 또한 특히 4학년이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리차드 추닝, 존 에비, 셸리 로엘즈,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 안동규, 한정화 옮김, 1995,
- 박성수 외 4인, 『나는 정직한 자의 행동을 믿는다』, 규장, 2004.
- 박정식, 신동령, 『경영분석』, 다산출판사. 2002, 146.
- 박정윤(1992), 창조적 투자론,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131-149.
- _____(1996),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 통합연구, 167-180.
- _____(1998), 『빛진 자로 살 것인가 빌려주는 자로 살 것인가』, 삼영사.
- _____(1998), “기독교인 경영기업과 일반기업의 자본구조전략 차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재무관리논총 제 4권 1호, 한국재무관리학회, 79-92.
- _____(2000), “재무정책과 기업부실예측,” 재무관리논총 제 6권 제 1호, 한국재무관리학회, 93-116.
- _____(2002), “창조에 나타난 경영사상,” 기독교경영연구 창간호, 65-74.
- _____(2004), 이중적 경영모형: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경영, 로고스경영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1-13.
- _____(2006), 『행복한 부자』, 영남대학교 출판부.
- _____(2006),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 인터넷 강의과목 개발사례, 로고스경영연구, 4권 2호, 49-74.
- _____(2007),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 2007년 한국로고스 경영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집, 한국로고스경영학회. 188-214.
- _____(2008),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증권투자』. 열린 시선.
- 서인덕, 김윤상, 『현대경영의 이해』, 2000, 336-350.
- 스탠리 탬(2004), 『스탠리 탬의 놀라운 모험』, 세복, 류선옥 옮김.
- 스티븐 스캇(2006), 『솔로몬 부자학 31장』, 오윤성 옮김, 지식노마드.
- 정충영(2000), 『경영이해』, 박영사, 49-73.
- Banks, Robert and Paul Stevens(1997),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InterVarsity Press, Downer Grove, Illinois.
- Brealey, Myers, and Allen(2006), *Corporate Finance*, McGraw-Hill, 8th Edition.
- Brown, Alvin (1947), *Organization of Industry*, New York, Prentice Hall, Inc..
- Park, Jeong Yun(2002), “Differences in Capital Structure: Strategies in Christian-managed Firms and and Secular Firms,”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145-173.
- Stevens, Paul (1997),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InterVarsity Press.
- Williams, Dan(1997), “Vision,”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InterVarsity Press, Downer Grove, Illinois, 1072-1075.

<부록>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 강의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 수강생 여러분,

저는 본 인터넷 과목의 강의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0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일

박 정 윤 교수 드림

1 문 제	1. 귀하는 현재 몇 학년에 재학중입니까?			
보 기	1. 1학년		13 %	19명
	2. 2학년		9 %	14명
	3. 3학년		19 %	27명
	4. 4학년		57 %	81명
2 문 제	2. 귀하의 성은 무엇입니까?			
보 기	1. 남성		65 %	93명
	2. 여성		34 %	48명
3 문 제	3. 귀하는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을 어떻게 수강신청하게 되었습니까?			
보 기	1. 박정윤 교수의 홍보로		11 %	16명
	2. 친구의 권유로		29 %	42명
	3. 강의요람을 보고		58 %	82명
	4. 교육개발센터(멀티미디어 지원센터)의 홍보로		0 %	1명
4 문 제	4. 귀하는 이번 학기에 인터넷 강의를 모두 몇 과목 수강하고 있습니까?			
보 기	1. 한 과목		12 %	18명
	2. 두 과목		54 %	77명
	3. 세 과목		32 %	46명
5 문 제	5. 귀하는 인터넷 강의를 off-line강의보다 더 선호합니까?			
보 기	1. 예		68 %	96명
	2. 아니오		31 %	45명

6 문 제	6. 귀하는 박정윤 교수가 강의하는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나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를 현재 수강신청을 하여 듣고 있거나 이전에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보 기	1. 예		63 %	89명
	2. 아니오		36 %	52명
7 문 제	7. 귀하는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 강의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보 기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53 %	76명
	2. 조금 만족하고 있다.		37 %	53명
	3. 그저 그렇다.		5 %	8명
	4. 조금 불만족하고 있다.		2 %	3명
	5. 조금 불만족하고 있다.		0 %	1명
8 문 제	8. 귀하는 이 과목을 다른 학생에게 수강을 어느 정도 권하겠습니까?			
보 기	1.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62 %	88명
	2. 소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17 %	24명
	3. 잘 모르겠다.		17 %	25명
	4. 소극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다.		2 %	3명
	5.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다.		0 %	1명
9 문 제	9.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보 기	1. 불교		10 %	15명
	2. 유교		0 %	1명
	3. 천주교(구교)		12 %	17명
	4. 개신교		46 %	65명
	5. 기타		30 %	43명
10 문 제	10. 귀하는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있습니까?			
보 기	1. 거의 매일		21 %	30명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26 %	37명
	3. 한 달에 한번 정도		8 %	12명
	4. 일년에 한번 정도		24 %	34명
	5. 한번도 읽은 적이 없다.		19 %	28명
11 문 제	11. 박정윤 교수는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의 교재를 집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제안해주세요.			Excel
답 변	1 : 기업경영에서의 BIBLE, 2 : 말씀안의 경영, 3 : 성경의 지혜, 경영의 지혜, 4 : 하나님의 경제학??, 5 : 성경으로 본 Business, 6 : 성경이 말하는 경영마인드 , 7 : 당장 생각은 잘 안나는데...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8 :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경영의 이해, 9 : 기업경영, 10 : 성경으로 배우는 성공적 기업경영 , 11 : biblical CEO, 12 : 하나님의 기업경영, 13 : /박정윤			

